

혁명전통주제중편소설들에서 주인공형상의 특성

강 은 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전집》 제44권 237~238페이지)

우리 나라에서 혁명전통주제의 중편소설은 1960년대부터 새로운 창작적양양을 이룩하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 혁명전통교양, 사회주의교양을 강화하는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이것은 중편소설분야에서도 혁명전통주제의 소설을 창작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혁명전통주제의 중편소설들이 적지 않게 창작됨으로써 우리 당원들과 군인들,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게 되었다.

혁명전통주제중편소설들에서 주인공형상의 특성은 무엇보다먼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항일혁명투사들을 원형으로 하여 그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와 혁명가로서의 고상한 인간미를 보여준것이다.

중편소설 《영생의 권리》는 항일혁명투사 최희숙동지를 원형으로 하여 그의 사상정신세계를 인간화적전지에서 깊이있게 해명하였다.

소설은 녀투사의 투쟁과 그의 최후에 대하여, 그가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받아안은 사랑에 대하여 보여주면서 원썬들에게 두눈을 빼앗기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친 녀투사의 혁명적신념과 지조의 근본원천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내세우고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깊이있게 해명하고있다.

소설은 주인공의 성격을 보여주는데서 혁명적신념이 형성되게 된 과정을 잘 보여주는데 모를 박았다. 주인공이 시내에 나가 조직선을 복구하는 과정을 진지하게 그려내면서 어떤 고난도 뚫고 혁명임무를 수행해가는 녀주인공을 여러 계층의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잘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혁명절개의 밑바탕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깨끗한 충정의 마음이 놓여있으며 바로 이것이 혁명의 승리와 미래를 굳건히 확신하는 락천적인 정신을 낳았고 그 믿음이 죽음도 웃으며 맞이할수 있는 불굴의 기개를 낳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잡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동지 한사람한사람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믿음이였고 자기에게 돌려주신 따뜻한 인정과 크나큰 믿음이였다. 그 인정과 믿음은 적들의 악형속에서도 굴할줄 모르며 혁명의 승리를 락관하는 신념의 강자로 키워준 원천이였다.

이와 함께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혁명가의 신념은 불속에서도 단두대에서도 변함없이 있어야 하며 그들처럼 살며 투쟁할 때 영생의 언덕에 오를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었다.

녀투사의 형상을 통하여 최후의 순간까지도 승리를 확신하는 불굴의 신념의 바탕을 잘 그려낸데 이 소설의 문학사적의의가 있다.

항일혁명투사들을 원형으로 한 혁명전통주제중편소설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고 웨친 투사들의 불굴의 신념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들을 교양하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오늘의 투쟁을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안고 전진시켜나가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혁명전통주제중편소설들에서 주인공형상의 특성은 다음으로 혁명의식이 낮은데로부터 혁명투쟁에 나서지 못하던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통하여 누구나 혁명적으로 각성되면 혁명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것이다.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중편소설에서 주인공의 혁명적각성과정을 기본으로 그린 작품으로는 《의사는 집을 떠났다》, 《생명》 등을 들수 있다. 이 소설들에서는 혁명적세계관형성의 합법칙성에 맞게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의 발전과 함께 각성되어가는 주인공들을 등장시켜 주제를 풀어나갔다.

우선 혁명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지식인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들이 혁명을 이해하고 투쟁에 나서는 과정을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중편소설 《의사는 집을 떠났다》와 《생명》은 혁명을 알게 되고 혁명에 참가하는 사람들로 의사를 선정하고있는데서 공통점을 보이고있다. 의술만을 알던 주인공들이 사상정신적으로 유격대원들에게 공감하는 이야기를 펼치며 그들이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게 되는 과정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리고있다. 작품의 주인공들은 다 일정한 지식과 의술을 가진 의사들로서 조선인민혁명군이 어떤 대오이며 유격대원들은 어떤 인간들인가를 자기의 체험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깨닫게 된다. 혁명가들을 산에 있는 비적으로 이해하던 주인공들은 산속에 들어와 유격대원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이야말로 가장 의리있고 가장 순결한 사람들이며 그들의 투쟁은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혁명이라는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도 성스러운 투쟁에 떨쳐나설 각오를 가지게 되는것이다.

특히 중편소설 《의사는 집을 떠났다》는 1970년대말에 창작된 혁명전통주제중편소설의 성과작으로서 문학사적의의가 큰 작품이다.

소설은 혁명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하고 의술만 높으면 된다고 생각하던 주인공이 유격대원들에 대하여 알게 되면서 그들을 따라 투쟁의 길에 나서는 이야기를 담고있다.

소설은 한 후방밀영 군의의 희생으로 어린 경남이와 진태가 호송되어오자 홍진표가 개인병원의사 백영국을 강제로 데려오는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있다.

주인공 백영국은 민족적량심을 가졌으나 의술은 정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치료를 부탁하는 절절한 호소가 담긴 편지를 보고도 선뜻 응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밀영에 와서 녀대원 성실이가 혼자서 환자들을 돌보는것을 보고 유격대원들사이에 오고가는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육친의 정을 느끼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인간중의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유격대원들은 가장 뜨거운 인간들이며 유격대는 친형제의 정으로 뭉쳐진 집단이라는것을 체험을 통하여 알게 된다. 밀영에 정들어 떠나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가는 속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투과정에 로획한 약재를 진태소대장에게 보내주신 가슴뜨거운 사연과 백선생이 위험을 무릎쓰고 유격대원들의 병을 고쳐준데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신것을 알게 된 주인공은 그제서야 드디어 집을 떠나 혁명의 길에 나서는것이다.

소설은 이렇게 각성되어 혁명의 길에 스스로 떨쳐나서는 주인공들을 생활론리에 맞게 잘 그려내었으며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민족의 한 성원이라면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는 사상을 형상적으로 잘 밝혀내었다.

또한 가정의 울타리속에서 천대와 압박을 받으며 혁명이란 말조차 모르고 살던 평범한 녀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들이 어떻게 참다운 혁명가로 성장하게 되는가를 깊이

있게 형상하였다.

당시 유격대를 적극 원호하고 도와준 사람들속에는 녀성들도 많았고 또 그들이 남편을 도와 혁명의 길에 나선 이야기는 이미 장편소설이나 영화문학에도 많이 형상화되었다.

중편소설 《밀영의 아침》도 역시 각성되어가는 녀주인공을 주요인물로 내세우고 그의 성장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녀주인공 정녀가 혁명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혁명조직과 각성된 혁명군중의 힘에 의거할 때 조국해방의 새아침이 밝아오리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의 주인공은 남편의 혁명사업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투전군들의 놀음으로만 보았던 평범한 농촌녀성이다. 소설에서는 너무도 수수하고 평범하던 농촌녀성인 정녀가 조선인민혁명군의 투쟁을 적극 원호하는 지하조직의 책임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준것으로 하여 의의있는 주인공을 설정한 중편소설로 되었다. 남편이 하는 일이 혁명사업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던 평범한 농촌녀성으로부터 정녀는 강의하고 대담한 혁명가로, 연락원으로 성장한다. 소설은 농촌녀성이 의지가 강하고 용감한 녀성혁명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조선민족이 계몽되어 한데 뭉쳐 싸워나간다면 조국해방의 날은 앞당겨지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전통주제중편소설들에서 주인공형상의 특성은 다음으로 항일무장투쟁시기 지하공작원들의 형상을 그리면서 혁명가의 참다운 삶에 대한 문제를 잘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중편소설 《새 임무》는 혁명가의 참된 삶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임무를 받아 수행하는데 혁명가의 삶이 있다는것을 주인공 진호의 형상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주인공 진호는 지하투쟁의 실천속에서 보다 원숙한 지하공작원으로 성장하는 인물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고 처음 동호진에 내려온 진호에게 있어서 손잡고 함께 일하게 되었던 상철이가 일제에게 학살되는 참경은 참으로 충격적이였다. 그러나 그는 계림철공소에 취직하여 지운세와 기찬 등을 조직성원으로 받아들이며 형사들의 경계를 뚫고 적들의 련차를 폭파할데 대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다. 끝끝한 지하조직원들로 자라난 그들을 남겨두고 새로운 임무를 받기 위해 떠나는 주인공 진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혁명가의 진정한 삶은 수령의 믿음속에 새로운 임무를 받아안는데 있다는것을 예술적화폭으로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중편소설들에서 각이한 주인공들의 형상은 새 세대들을 항일의 혁명선렬들처럼 살며 투쟁하도록 교양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그 혁명적주제와 깊이있는 해명, 주인공의 특색있는 형상 등으로 하여 우리 독자들의 가슴속에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의 한길을 억세게 싸워나갈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굳건히 한 진짜배기혁명가들로 준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